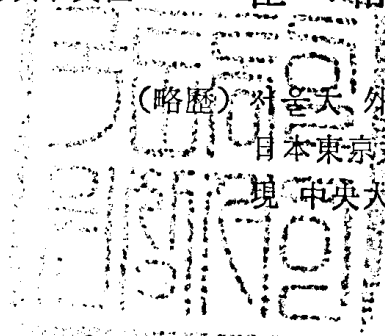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國際政治에 있어서 韓國의 近代化와 民族主義

研究執筆責任 崔 相 龍



(略歷) 서울天 外交學科 卒業

日本東京大學 政治學博士

現 中央大學校 教授

刊行責任 李 壽 一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1. 新興國「近代化」論의 이데올로기의 性格	3
머리말	3
1) 新興國에 對의 近代化論	7
① W. W. Rostow의 經濟成長段階說	7
② 蘇聯의 國家資本主義論	15
2) 新興國으로부터의 發展論	22
① A. G. Frank의 從屬論 (dependency theory)	22
② 第3世界 發展論	27
맺는말	32
2. 新興國의 民族主義 : 象徴과 現實	35
머리말	35
1) 그 外生的 契機	38
① 유럽 植民主義에의 抵抗 - 反植民主義	38
② 東·西冷戰體制로부터의 離脫 - 非同盟·中立主義	42
2) 그 內生的 條件	48

① 政治參加 機能의 障碍	53
② komunikasyon 機能의 障碍	55
③ 統合機能의 障碍	57
④ 價值分配機能의 障碍	60
맺는말	62

1. 新興國 「近代化」論의 이데올로기의 性格*

머리말

우선 研究의 目的과 分析의 範圍를 밝히기 위하여 이 논문의 主題를 형성하고 있는 基本概念과 전체의 構成에 대해서 몇마디 해 두고자 한다.

첫째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新興國, 近代化, 이데올로기 등 概念의 의미에 관해서다. 아다시피 이들 概念은 지극히 논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느것도 학계의 합의를 얻은 엄밀하고 정확한 概念은 아니다. 물론 社會科學의 어떠한 概念에서도 자연과학이나 형식논리학의 概念에서와 같은 보편성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위의 3가지 概念에 대해서도 自明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다만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최대한의 합의를 전제로 한, 作業上의 定義를 토대로 하여 논의할 수 밖에 없다.

新興國의 概念은 그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반드시 명백하지는 않으나 이 논문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이른바 第3世界¹⁾에 속하는 나라들을 지칭한다.

㉑ 역사적으로는 第2次 세계대전전에 유럽식민지의 경험을 가진 非유럽諸国, ㉒ 第2次 世界大戰後 政治的 獨立을 얻은 新生・後進諸国 ㉓ 經濟的인 低開發 또는 開發途上諸国 ㉔ 地理的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諸国 ㉕ 國際政治体制의 맥락에서 보아, 東西關係에서는 東・西 어느측에도 편승하기를 거부하는 非同盟諸国, 東北關係에서는 「北」側의 先進工業諸国과 非對稱的關係에 있는 「南」의 諸国等.

그 다음 이 논문에서 문제삼는 이데올로기의 概念은 認識論的, 知識社會學的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현대의 政治的이데올로기이며 그 중에서도 ㉖ 政治体制의 存立根拠를 나타내는 体制이데올로기로서의 資本主義・自由民主主義, 社會主義・共產主義와 ㉗ 政治体制의 단위로서의 民族國家나 地域의 目標價值를 나타내는 民族主義이데올로기에 限定했다.

近代化論은 대체로 傳統社會에서 近代社會에로의 移行과정을 문제삼고 있으나 아직도 定式化된 일반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 政治的 近代化를 論하는 사람, 社會的 近代化를 論하는 사람, 그리고 經濟的 近代化를 論하는 사람이 제각기 近代化의 基準을 달리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론구성의 方法도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위의 3種의 近代化論 사이에 명백한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分析의 편의상 分類를 한다면 經濟的 近代化論은 工業化

(industrialization) 를, 社会的 近代化論은 合理化 (rationalization) 를, 政治的 近代化論은 民主化 (democratization) 를 각기 핵심적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가 보통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近代化 概念은 工業化, 合理化, 그리고 民主化에 따른 한 社会의 構造的 變動過程을 지칭한다.

아다시피 社会組織原理의 合理化를 基準으로 하는 近代化論은 주로 構造機能主義者들에 의해 전개되어 온 것으로 특히 파슨스 (Talcott Parsons) 의 類型變數²⁾ (Pattern Variable) 에 의한 分析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그리고 政治的 決定에 대한 參加의 범위, 政治体制의 개개구성원의 權利, 義務意識의 정도등을 基準으로 하는 政治的 近代化論은 서구형의 발전양식을 암묵의 전제로 하는 政治發展論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工業化를 中心으로 다루는 좁은 의미의 政治經濟 (political economy) 적인 近代化論에 限定하되, 工業化 자체의 內容分析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全地球的인 현상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의 政治經濟的인 近代化論이 전제하고 있는 일련의 가설적 명제를 分析함으로써 그 方法論上的 특징 및 이데올로기적 性格을 도출해 보고저 하는 것이다.

둘째, 이 논문전체의 構成에 대해서라.

이 논문은 크게 두개의 軸으로 나누어 지는데 하나는 新興國으로의 近代化論이고, 다른 하나는 新興國으로부터의 近代化論이다.

第2次 世界大戰後 「西」側을 代表하는 美國과 「東」側을 代表하는 蘇聯이 각기 자국의 국제질서판에 立脚하여 新興國의 發展方向에 대한 理論的 전망을 하게 되었는데 新興國側에서 보면 이와같은 東·西兩側의 近代化論은 밖으로부터의 (from without) 近代化論이다. 여기서는 로스토우 (W·W·Rostow)의 經濟成長段階說과 蘇聯의 國家資本主義論을 中心으로 그 方法論的 特長과 政治이 데올로기적 性格을 구명한다. 그 다음 新興國으로 부터의 近代化論은 新興國側에서 自主的으로 제기된 안으로 부터의 (from within) 近代化論이다. 밖으로 부터의 近代化論이 「東」과 「西」의 體制이 데올로기의 普遍化의 產物이라면, 안으로부터의 近代化論은 個別國家의 特殊性, 多樣性을 핵심으로 하는 新興國獨自의 近代化·發展論이다. 이 논문에서는 프랭크 (A·G·Frank)의 從屬論과 新興諸國出身의 研究者나 다른나라의 新興國 전문가들이 展開하는 第3世界論을 대상으로 하여 그 發展方向을 전망하고자 한다.

1) 新興國에 對한 近代化論

① W·W·Rostow의 經濟成長段階說

대부분의 西方側 近代化論者들이 意識 無意識間에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마르크스주의의 理論틀인 唯物史觀을 批判하고 이에 대신할 수 있는 理論體系를 構成하려고 하고 있는 점이다.

아다시피 로스토우(W·W·Rostow)는 唯物史觀의 發展論을 批判한 선구적인 近代化論者이며 그의 經濟成長段階說은 많은 西方側 近代化論者에게 理論的 基礎와 理念的 方向을 제시했던 것이다.

여기서는 로스토우가 문제삼았던 마르크스主義의 基本命題와 이에 대한 로스토우 자신의 理論構成 및 그 方法論上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로스토우가 批判한 唯物史觀의 基本命題는 다음 두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㉞ 이른바 下部構造와 上部構造와의 關係이다. 즉 마르크스는 물질적 生産力의 일정한 發展段階에 對應하는 生産關係의 총체가 社會의 經濟構造인데 이 經濟構造 즉 土台위에 法律的 政治的 上部構造가 成立하고 이 土台위에 일정한 社會的 意識이 對應한다고

한다.

㉔ 社會의 역사발전 단계설과 관련된 문제이다. 마르크스는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각 시기를 구별하는 것은 생산양식이라고 보고 社會革命에 의한 생산양식의 변혁의 기초에 있는 것이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矛盾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対応하여 로스토우의 近代化論의 方法論的 특징도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로스토우는 마르크스의 「下部構造・上部構造」論을 經濟決定論이라 비판하고 이에 대하여 社會에 있어서의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의 相互作用說을 강조한다.

로스토우는 그의 저서 「經濟成長의 諸段階」³⁾에서 경제적 변화가 社會, 政治, 文化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유물사관의 기본명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社會의 일부분으로서의 경제적 이익이 필연적이고 지배적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있다.

「하나의 非共產主義宣言」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저서에서 로스토우는 마르크스주의의 모든 오류의 근원이 바로 이 경제 결정론에 있음을 지적하고 그 자신은 社會를 상호작용적 유기체

(interacting organization) 로 把握하려고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 성장 단계설은..... 政治, 社会組織, 文化의 世界가 經濟위에 세워지고 경제로 부터 1義的으로 도출되는 단순한 上部構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우리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뒤늦게야 알아차리게 된 인식 즉 사회는 상호작용적 유기체라고 하는 인식을 처음부터 받아들인다. 경제적 변화가 정치 사회에 중대한 影響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책에서는 경제적 변화 자신도 좁은 의미의 경제만이 아닌 정치적 및 社会的 諸力 (forces) 의 귀결로 간주된다. 그리고 인간적 동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깊은 경제적 변화의 많은 것도 비경제적 인간적 동기와 욕망의 귀결로 간주된다. 」⁴⁾

로스토후는 경제적 요소와 비경제적 요소간의 관계에 대한 方法論的 認識을 위하여 한편으로 政治, 社会, 文化와 다른 한편으로 경제와의 媒介項으로서 性向 (propensity) 의 概念을 설정했다. 그는 性向概念을 통하여 非經濟的 要素의 經濟的 要素에 대한 反作用을 증명하려고 했다.

性向이란 그에 의하면 경제적 자극내지 물질적인 기회에 대한 社会의 反應이다. 그는 6 가지의 性向 즉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려

는 性向, 科學을 경제적 목적에 적응하려는 性向, 革新을 받아들이려는 性向, 물질적 向上을 구하려는 性向, 소비性向, 애기를 가지려는 性向 등을 들고있다. 이와같은 諸性向은 그에 의하면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社會의 반응이며, 社會의 반응은 그 社會의 價值體系나 制度의 反應을 의미한다.

그런데 로스토우는 性向의 強度와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社會의 가치체계 또는 社會制度의 현실의 행동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요인과 性向間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把握할 수 없는 한 性向의 量的 把握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로스토우 자신도 「諸性向間의 강도와 諸性向의 변동의 과정은 실질소득수준내지 그 변동의 단순한 함수가 아니고 社會的 경제적 정치적 諸力間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⁵⁾ 고 지적하고, 이러한 社會諸力의 상호작용과 인간의 諸動機의 分析을 포함한 社會이론을 구축하기 위하여 社會학자 인류학자 심리학자 역사학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性向概念의 철저한 구명을 포기하고 있다.

요컨대 그는 유물사관의 경제 결정론을 비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경제적 요인을, 社會心理的 傾向으로서의 性向概念으

로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 둘째 그의 方法論的 특징은 테크놀로지로서의 生産力의 相異를 시대구분의 주요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가 급격하게 증대하는 과정에 들어 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사회를 「傳統的 社会」와 「近代的 社会」로 대별하고 있는 점이다.

近代性이란 傳統性에 대한 概念으로서 사용되고 있고,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있어서의 相異이다.

로스토크우는 「傳統社会」는 「그 구조의 발전이 뉴턴 이전의 과학과 기술에 기초를 두며 자연세계에 대한 뉴턴 이전적인 태도 (pre-Newtonian attitudes)에 기초를 둔 한정된 生産機能에 머무르는 社会」로⁶⁾ 정의하고 근대社会的 제 1 단계로서의 「跳躍」(take-off) 단계를 「유효한 투자율 내지 저축률이 국민소득의 5%에서 10%내지는 그 이상 상승하는」⁷⁾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다 아다시피 로스토크우는 근대화의 단계를 ㉠ 傳統社会 ㉡ 跳躍을 위한 準備期 ㉢ 跳躍期 ㉣ 成熟에의 前進期 ㉤ 高度大衆 消費時代로 나누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은 근대社会的 발전단계이고 ㉠은 傳統社会에서 近代社会에로의 과도기인데 대부분의 新興

低開發國이 ㉔의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로스토우는 마르크스주의의 전제인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矛盾에 의한 이른바 唯物弁証法的 發展段階說에 대립하여 생산력으
로서의 테크놀로지를 기준으로 한 社會의 單線的 發展段階說을 주
장한다.

로스토우의 經濟成長段階說의 特徵은 첫째, 무엇보다도 한 社會의
發展段階를 직선코-스로 본 나머지 西歐는 非西歐는 間に 近代化
를 추진하는 모든 社會에 있어서 地理的 位置나 歴史的 傳統에
관계없이 관찰 가능한 類似性을 발견하려고 하는 점이다.

로스토우를 비롯한 대부분의 西方側의 近代化論은 近代化의 다양
한 과정 가운데 類似性을 發見하는 것을 제 1의 目標로 하고 있
고, 이렇게 해서 발견된 類似性을 近代化의 指標로 삼는 것이다.

類似性의 發見은 한편으로는 經濟體制 내지 政治體制의 相異를
論外로 함으로써만이 可能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視點이나 立
場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不可能하다.

資本主義 體制와 社會主義體制와의 體制的 차이를 論外로 하면
거기에는 공업화라는 공통의 현상이 보이니까 西方側의 近代化論者
는 고도공업社會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볼 수 있는 현저한 現象

을 추출하여 近代化의 지표로 삼아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近代化論者가 体制의 相異를 이른바 價值中立的으로 把握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社會主義의 成立을 쉘즈 (Edward Shils) 처럼 「기형적 근대화」나 로스토우처럼 「過度期の 病」 (a disease of the transition)⁹⁾으로 부른 것으로 보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대화의 지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西方側 근대화론자가 社會主義路線을 排除하고 資本主義的 工業化過程을 自明의 前提로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그 다음 둘째, 로스토우의 근대화론의 特徵은 제 2 단계, 즉 跳躍準備期에 있는 新興諸國의 근대화에 있어서의 政府役割을 강조한 점이다.

즉 그는 밀리칸 (M.F. Millikan) 과의 共著¹⁰⁾에서 新興國의 경제개발이 私的部門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國유부분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산업부르조아가 부족한 대부분의 新興國에서는 우선 정부에 의해 社會間接資本이 형성되어야 하고,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자유민간기업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실로 근대경제학의 제보에 속하는 저개발국이론의 주류는 바로

이 混合經濟的 啓發理論이라고 할 수 있다. 國家의 經濟活動을 社會間接資本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의 生産企業에만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지나 균형성장을 주장하는 녉시¹¹⁾ (Ragnar Nurkuse)나 불균형성장론을 주장하는 허쉬만¹²⁾ (Albert O. Hirshman)도 新興 低開發國의 經濟成長이 私的部門과 公的部門의 混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한 점에서는 공통성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도로, 운수, 통신 등 社會的 間接資本의 整備은 民間資本을 육성하는 기반이 되며 直接的 生産部門에 있어서의 國有기업도 그것이 장래에 私的기업에 불하하는 한, 민간기업의 촉진제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混合經濟的 啓發論의 理念的 目標가 資本主義的 國民經濟의 育成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어떤 條件하에서는 國家部門이 社會主義的 國民經濟에로 이행하는 土臺가 된다고 보는 것이 次節에서 다루는 蘇聯의 國家資本主義論이다.

② 蘇聯의 國家資本主義論

蘇聯은 低開發國問題의 理論的 구명에 있어서 美國에 비해 훨씬 뒤져 있었다. 그 이유는 스탈린치하의 蘇聯共産黨이 프로레타리아의 헤게모니하의 獨立이 아닌 여하한 政治的 獨立도 참다운 獨立이 아니라는 견지에서 戰後 新興國의 獨立을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의 위장이라고 보고, 新興國을 독자의 理論的 對象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蘇聯共産黨이 식민지 從屬國의 政治的 獨立에 積極的으로 対応한 것은 후르시초프에 의한 스탈린批判의 秘密報告가 있었던 1956년 제 20차 黨大會 때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의 관심의 초점이 된 주제가 바로 戰後 新興國의 國家資本主義의 성격에 관한 문제였다.

國家資本主義 論爭이라고 불리웠던 이 論爭은 蘇聯의 經濟學者 루빈슈타인이 1956年 발표한 「後進諸國의 非資本主義的 發展의 道」¹³⁾에 대하여 인도공산당 서기장 고-쉬 (Ajoy Ghosh)가 반론을 제기한 데서 출발한다. 즉 루빈슈타인은 「인도에는 독점 자본주의의 발전을 방지하고 압도적 다수의 國民의 의지에 따라 平和的 方法으로 社會主義的 發展으로 進行할 客觀的 可能性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 가능성을 인도국민회의와 政府의 國家資本主義 政策에서 보았다. 이에 대하여 고-쉬는 「後進諸国에서 國有部門의 擴大가 진보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國有部門을 發展시킴으로써 이러한 나라가 非資本主義的 發展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명제는 정당치 않다」¹⁴⁾고 지적하고 인도에서의 非資本主義的 路線은 勞動者階級이 이끄는 대중의 손에 權力이 이행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고 批判했다.

루빈슈타인은 國家資本主義는 低開發國을 하나의 独自の 경제범주로 把握하고 그것을 歐美의 「独占資本主義」와 구별한 의미에서 그후의 新興諸國의 國家資本主義研究의 基本方向을 提示했다.

이들 國家資本主義論의 特色은 低開發國의 國家資本主義를 低開發國政府의 좁은 의미의 經濟政策이 아니라 低開發國의 經濟的 社會構成의 独自の 패턴으로 把握하고 있는 점인데 그 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獨立時點에 있어서의 低開發國의 經濟的 社會構成은 오랜 식민지 지배에 의해 私經營的 資本主義 요소와 前資本主義的 (종족 공동체적·가부장적 小商品生産적) 요소로 構成되는 복합적인 범주이며 그중에서도 私經營的 資本主義의 基本部分은 外國資本이거나

民族資本이라도 극히 약소한 경우이다. 따라서 新興國은 前資本主義的 諸要素의 압도적 비중하에 국민경제의 급속한 自主化라는 民族的 要求를 실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內生的 制約때문에 新興國의 經濟發展은 미성숙한 私經營的 資本主義의 自然成長性을 軸으로 할 수 없고, 불가피하게 國家資本主義를 軸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④ 戰後 식민지를 상실한 資本主義体制는 先進國과 低開發國間의 經濟的 격차를 유지, 강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資本主義 世界市場의 社會 經濟的 土台를 体制的으로 等質化하는 것은 不可能하였다. 따라서 新興國으로서의 이러한 外生的 制約 때문에 國家權力의 發動으로 獨自的인 再生産機構를 만들어 나가는 길 이외에 국민경제의 自立化는 달성할 수 없었다. 15)

위와 같은 內的, 外的 制約 때문에 低開發國의 國家資本主義는 채용할 수도 있고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一回的인 經濟政策이 아니라 低開發國이 國民經濟의 自立化를 위해 불가피하게 법칙적으로 정립하지 않을 수 없는 獨自的 카테고리로 把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후 식민지 종속국의 정치적 獨立에 대한 새로운 評價는

1960年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81개국의 共産党・労働者党 대표자 회의에서 공인되었고 그때 채택된 이른바 「모스크바声明」에서 이들 新興국의 政治的 獨立을 「社会主義世界体制의 成立에 따른 제 2의 現象」으로 評價했던 것이다.

「모스크바声明」에서 제기된 「民族民主国家」論은 戰後 新興국의 政治的인 獨立에 대한 「東」側의 새로운 評價의 産物이고 「国家資本主義」論은 「民族民主国家」의 범주에 속하는 新興국의 国民經濟形成을 위한 蘇聯型的 開發理論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용어법에 따르면 전후 제3세계의 「民族民主国家」는¹⁶⁾ 「国家資本主義」의 發展法則에 따라 「그 나라 内部의 특수한 資本主義的 發展의 길이 불가피하게 된다」¹⁷⁾는 것이다.

요컨대 「民族民主国家」論은 戰後 新興국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가 아닌 民族 부르조아지나 중산층이 社会主義國과 協力, 그 원조를 받아 国有部門을 擴大하고 生産力의 發展을 기함으로써 점차 노동자계급의 勢力을 增大시켜 社会主義에로의 移行을 주도할 수 있다는 理論으로 어디까지나 新興국에 대한 蘇聯의 革命戰略에 名分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같은 左傾理論이면서 新植民主主義論을 채용하는 자

들은 低開發國의 國家資本主義를 社會主義에의 이행의 물질적 토대로 보는데 대한 反論을 제기하고 있다. 그 비판점은 대체로 아래의 3가지 점으로 要約할 수 있다.

㉞ 蘇聯의 一部 國家資本主義論은 新興國의 國家主權을 完全한 것으로 보나 新興國 가운데는 형식적 獨立 - 그들의 用語에 따르면 半植民地 - 도 있고 이 경우 國家資本主義의 기능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國家權力은 여전히 新植民地主義의 수중에 있다.

㉟ 政治的 獨立이 達成된 나라의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 지배적 生産關係는 여전히 제국주의적 내지 植民地主義的인 범주이며 國家資本主義的 獨自의 범주는 아니다.

㊱ 現代의 新植民地主義는 新興國의 國家資本主義機構를 통로로 하고 있다. 따라서 國家資本主義는 경우에 따라서는 新植民地主義 政策의 道具다.

요컨대 新興獨立諸國에 있어서의 國家資本主義의 機能을 評價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權力의 所在 및 性格 先進 資本主義國과 當該國과의 關係 특히 當해國에 있어서의 外國資本의 역할과 지위를 明確히 分析해야 한다¹⁸⁾는 것이다.

國家資本主義論과 新植民地主義論과의 근본적 차이는

㉠ 新興諸國에 있어서의 지배적인 國家形式에 관한 것으로서 國家資本主義가 前記의 모스크바聲明에 의거하여 「民族民主國家」의 形成에 제3세계의 기본동향을 보는데 대하여, 新植民主主義論은 레닌의 「帝國主義論」의 카테고리에 토대를 두어 現代의 植民主地體制가 「半植民主」(형식상으로 獨立하고 있으나 金融的 政治的으로 從屬하고 있는 나라)을 中心으로 再編成되어 있다고 본다.

㉡ 國際 政治的 影響力에 관한 것으로 國家資本主義論이 이른바 世界社會主義共同體의 影響力의 우월성을 전제로 한 데 비해, 新植民主論은 第3世界에 대한 美國의 影響力에 역점을 둔다.

第3世界의 기본특징 및 動向을 「民族民主國家」의 形成에서 찾든, 新植民主主義的 再編成에서 찾든 그 궁극의 目標은 第3世界의 社會主義化의 주장과 信念에 토대를 두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한 점에서 「民族民主國家」論은 戰後版 統一戰線論이라고 할 수 있고, 新植民主主義論은 戰後版 帝國主義論이라고 할 수 있다.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스탈린의 統一戰線論이 1917年 革命이래 戰前까지의 革命戰略이라면, 오늘날 「東」側의 「民族民主國家」論과 新植民主主義論은 平和共存時代의 革命戰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東」側의 革命戰略에도 불구하고 現實은 經濟의 國家權力의 介入을 特징으로 하는 國家資本主義가 蘇聯이 보듯이 社會主義에로의 이행을 위한 媒介段階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60年代의 蘇聯流의 國家資本主義論의 自명한 전제로 되어 있던 이른바 世界社會主義共同體는 個個 民族國家의 特수성이 부각됨으로써 中·蘇 論爭, 蘇聯의 체코개입 및 그것을 둘러싼 社會主義 諸國의 反應 등에서 볼 수 있듯이 社會主義共同體로의 進行보다는 分裂의 계기를 내포하고 있는 多樣한 社會主義의 亂立現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新植民地主義論도 그 주장의 도덕성에도 불구하고 新興國 近代化論에 대한 現實的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그들의 立論에 따르면 社會主義革命에 의한 自力更生모델 이외의 대안은 도출되지 않으나 工業化를 中核으로 한 近代化의 目的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自力更生모델 이외에도 多樣한 混合型이 亂立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제3세계의 특징이다.

2) 新興國으로부터의 發展論

① A.G. Frank의 從屬論 (dependency theory)

1960년대 後半부터 70年代 初半에 걸쳐 第3世界의 經濟學者들은 주로 그들 出身國의 現實分析을 통한 理論活動을 展開하여 新興諸國의 低開發性이 국제경제, 그들의 표현을 따르면 現代世界 資本主義의 메카니즘의 결과라는 것을 논증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第3世界의 자기주장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近代化 發展論이 아닌 第3世界 独自の 發展論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프랭크를 비롯한 南美諸國의 政治經濟論者들에 의해 제기된 이른바 從屬論이다.

프랭크는 그의 저서 「低開發이나 革命이나」¹⁹⁾에서 現在의 고도자본주의 社會와 低開發社會 사이에는 工業製品과 1次產品과의 貿易條件에 있어서 支配와 從屬關係가 存在하고 한 社會内部的 下位集團이나 地域 사이에도 같은 종류의 不平等關係가 存在한다고 結論내리고 이러한 일련의 不平等關係를 포괄하는 基本概念으로 中樞衛星構造 (Metropolis-Satellite Structure)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現代의 低開發 (underdevelopment)을, 대부분 過去나 現在에도 계속하고 있는 低開發的 衛星諸國과 先進的 中樞諸國間的

經濟를 비롯한 諸關係의 역사적 所産으로 把握한다. 20) 그는 低開發國을 二重社會, 二重經濟로 把握하는 논자들을 비판하고 현재의 지구상의 모든 社會의 關係를 결정하는 것은 資本主義體制이며 發展과 低開發은 그 資本主義體制의 구조적 필연으로 본다.

프랭크의 이러한 역사적 구조적 接近은 發展과 低開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일련의 假說을 도출하였다.

제 1의 假說 : 외국의 衛星國의 지위에 있지 않은 世界中樞 (world metropolis)의 發展에 비하여 國內中樞, 從屬的인 中樞 (Subordinate metropolis)의 發展은 그 衛星的 지위 때문에 制限을 받는다. 21)

프랭크는 라틴아메리카諸國에 있어서의 國內中樞 (national metropolis)의 非自主的 (non-autonomous) 經濟發展의 사례를 들었다.

프랭크는 제 3世界 특히 라틴아메리카를 歐美의 近代化論의 암묵의 전제로 되어있는 單線的 發展段階說의 觀點에서 前近代的 社會로 把握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衛星的·從屬的, 資本主義 社會로 把握한다.

제 2의 假說 : 衛星國은 그 中樞國과의 접촉이 약했던 시기에

현저한 經濟發展 즉 資本主義的 工業發展을 이룩했다. 22)

프랭크는 제 1차 世界大戰 때와 1930年代의 경제공황때에 中樞國의 投資 및 貿易이 감소했기 때문에 알젠티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에서 오히려 自立的 工業化 (autonomous industrialization)와 경제성장이 달성된 실례를 들고 있다. 그리고 그는 世界資本主義體制의 衛星化를 피하여 工業化에 성공한 고전적인 예로 明治維新 이후의 日本을 들고 있다. 즉 資源이 부족한 日本이 資源이 풍부한 라틴 아메리카보다 工業化가 급속하게 진행된 것은 日本이 徳川時代, 明治時代를 통하여 先進資本主義國의 衛星國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3)

이와 같은 가설은 從屬國은 先進中樞國과의 접촉을 통하여 後者를 모델로 하여 發展을 이룩한다는 西側의 近代化論者의 立場과 正面으로 對立하는 것이다.

從屬論의 가설에 따르면 中樞國이 衛星國의 개발을 촉진하면 할수록 衛星國內의 所得分配는 불균형하게 된다.

이 이론테면 아델만 (Irma Adelman) 과 모리스 (Cynthia Taft Moris)의 통계적 연구에 의하면 43개의 新興國에 대해서 그 所得分配內容을 分析한 결과, 全人口의 60%를 점하는 최저 所得層이 全國民所得의 26%를 취득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全人口의 5%를 점하는 최고

所得層이 全國民所得의 30%를 획득하고 있다. 24)

第3의 假說 : 이것은 第2의 가설의 論理的 帰結인데 오늘날 가장 低開發狀態에 있는 지역은 中樞國의 접촉이 가장 많았던 衛星國이다. 이 지역은 한때 中樞國에 대한 제1차 산품수출국인 동시에 中樞國의 資本의 최대의 원천이었으나 中樞國의 필요에 따라 버려진 지역들이다.

프랭크는 이러한 지역으로 사탕수출지역이었던 西인도諸島, 브라질 동북부지역, 蠶業지역으로 유명했던 페루고원, 볼리비아, 멕시코 中央部 등의 지역을 들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사탕의 시장과 蠶業資源이 줄어들게 되자 中樞國에 의해서 버려짐에 따라 그후에도 기존의 경제 정치 社會構造 때문에 자립적인 經濟發展은 不可能하고 결국 극도의 低開發地域으로 墮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第3의 가설은 어떤 地域의 低開發의 原因이 그 지역의 孤立과 前資本主義(pre-Capitalist)의 制度에 있다고 하는 通說과 대립하는 것이다. 25)

이상에서 필자는 프랭크의 從屬論이 진제로 하는 假說과 그것이 로스토크를 中心으로 하는 西方側의 近代化論의 假說에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從屬論은 低開發國의 立場에서 國家間 내지 國內의 복잡한 不平等關係를 해명하려고 한점에서, 西方側 아카데미즘 내부에서 기존의 발전이론에 대한 方法論的 批判이 대두되고 있고, 第3世界의 独自の 發展論이 問題되고 있는 現時點에서 볼때 그 立論의 타당성을 論外로 하더라도 꽤 주목할만한 傾向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랭크의 革命論은 그의 批判者들의 評價처럼 一元的社會主義를 指可하는 일종의 世界革命論으로서 民族보다는 階級, 農民보다 勞動者, 그리고 「一國」보다 「連帶」에 역점을 둠으로써 일견 中共의 自力更生모델과 좋은 對照를 이루기는 하나 兩者는 적어도 아래와 같은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 第3世界內側으로 부터 나온 自主的 革命論이라는점, ㉡ 國家水準의 自立的發展(autonomous development)을 중시한점 ㉢ 體制이 메울로기로서의 社會主義의 優位性을 確信한점

요컨대 南美型從屬論과 中共型自力更生論은 社會主義와 民族主義의 相互媒介를 內容으로 하는 第3世界發展論의 이데올로기의性向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第3世界發展論

近代化論者가 近代社會의 構造的 동질성을 전제로 하여 歐美先進國의 모델로써 非유럽新興國의 發展過程을 설명한데 대하여 호로비츠²⁶⁾는 제1, 제2, 세계와 다른 제3세계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즉 제1세계는 資本主義와 議會民主主義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제2세계는 社會주의 경제제도와 民主集中制 (democratic centralism)와 一黨制의 政治形態로 특징지어 지는데²⁷⁾ 제3세계는 다양한 政治經濟形態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호로비츠에 의하면 제3세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經濟的으로는 私企業, 公企業을 같이 가지고 있고, 더우기 社會主義的 傾向을 띤 混合經濟이다. 工業의 成立은 아직 跳躍 段階를 脫피하지 못하고, 自給自足を 希望하면서도 開發을 위해 外國援助를 必要로하고 있다. 기간산업에 역점을 두면서도 여전히 農業經濟가 產業의 中心이 되어있다.

㉡ 政治的으로는 民族主義에의 傾斜가 強하고 強力한 카리스마적지도자가 등장하는 社會이다. 또한 고도로 中央集權化된 國家

로서 형식상으로 共和制²⁸⁾를 취하나 실질적으로는 一党制의 權威主義的인 國家가 대부분이다.

㉔ 社会的으로는 급속한 도시화가 進行하고 社会變動은 傳統的 地域에서는 여전히 약하고 公업지대에서는 서서히 增大하고 있다.

教育의 중시로 문맹이 줄어들고, 대중코뮤니케이션은 발달하고 있는데 소비수준은 낮다.

西歐와 같이 종교와 세속과의 명백한 구별은 存在하지 않는다²⁹⁾

㉕ 軍事的으로는 軍이 주권시위의 주요한 담당세력이 되며 直接 政治指導者가 되기도 한다.

요컨대 호로비츠에 의하면 제 3 세계의 發展方向은 歐美型이나 蘇聯型과 다르며 兩側의 모델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대부분이 混合·折衷型이다.

그는 美国型이 第 3 世界の 모델이 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㉖ 美国은 자유방임경제 방식에 의해 公업화하고 國民的 規模의 經濟計劃을 행한 적이 없다.

㉗ 美国經濟에 있어서의 独占과 과점의 狀況은 國民所得의 不平等을 완화하려는 平等指向的인 제 3 세계로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

니다.

蘇聯에 대한 제 3 세계의 態度는, ㉞ 제 3 세계가 필요로 하는 技術은 蘇聯보다 美國이 더 낫고 ㉟ 蘇聯의 거대한 官僚機構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 ㊱ 蘇聯은 理想으로서는 民族自決을 얘기하면서 現實적으로 干涉政策을 취하고 있다. 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30)

戰後 新興諸國은 工業化를 中心課題로 하는 國家發展을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하나 그 國家發展의 方法 및 方向에 대해서는 명백한 代案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리하여 第 3 世界에 속하는 대부분의 新興國은 第 1 世界의 資本主義 經濟의 結晶, 第 2 世界의 國際共產主義에 대한 불신때문에 美·蘇에 의해 대표되는 第 1, 第 2 世界의 發展모델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兩世界의 政治, 經濟, 社會構造의 混合에서 스스로의 살길을 구하려 하고 있다. 마즈루이 (Ali A. Mazrui) 는 20세기 아프리카에 影響을 주는 4개의 思想體系로서 資本主義 民族主義 社會主義 傳統主義를 들고 이들 複數의 思想體系의 創造的折衷³¹⁾ (creative eclecticism) 만이 아프리카의 理念的 選擇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앤더선 등은 發展社會主義(developmental socialism) 概念을 제시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第3世界諸國의 發展方向을 설명하고 있다. 32) 여기서 말하는 社會主義는 유럽社會主義의 傳統과 다른 第3世界諸國 나라의 다양한 信念體系 다양한 綱領을 토대로 하는, 近代化의 推進力으로서의 社會主義이다. 이와 같은 發展社會主義의 변형으로는 이를 예면 「버마社會主義」 「인도네시아社會主義」시하누크治下 旧캄보디아의 「王制社會主義」 세이론의 「仏敎社會主義」등이 그 좋은 例이다. 33)

버마, 타이, 共產化되기 전의 라오스, 캄보디아 등 東南아시아제국에 있어서 獨立達成의 과정에서 反殖民地主義運動의 무기로 채용된 社會主義가 傳統的 가치의 中核인 불교와 대립의 계기를 결여한 채 獨立에 이르렀기 때문에 獨立 後에 다시 統合의 상징으로서 불교가 再評價되어 그 결과 「仏敎社會主義」라는 概念이 明確한 의미내용도 없이 제시되어 왔다. 한편 불교적 가치의 강조가 도리어 國民統合의 장애요인이 될 경우에는 「世俗國家」를 표방함으로써 非仏敎徒와의 대립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34)

그런데 우리는 第3世界諸國의 近代化 發展論이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社會主義를 표방하고 있으면서 다른한편 각개별國家

나 각지역의 民族主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公式을 따르고 있는 발전모델도 그 대부분은 社會主義的 自力更生이라는 이름의 民族主義를 內包하고 있다.

요컨대 第3世界의 民族主義는 民族國家를 單位로 하는 發展 (national development)을 기본목표로 하여 具體적으로는 政治的獨立과 經濟的自立的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政治的으로는 第1世界의 資本主義的 先進工業諸國과 第2世界의 社會主義的 先進工業諸國의 양극적인 國際體制속에서 그 어느쪽에도 편승하지 않은 非同盟主義의 형태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자국의 천연자원 및 모든 經濟活動에 관한 恒久的主權을 주장하는 資源民族主義 또는 經濟民族主義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第3世界諸國의 民族主義의 기본과제로 제기되어 있는 이른바 「自力更生」(self-reliance) 또는 自主的發展 (autonomous development)은 한편으로는 그들 新興諸國이 先進工業諸國에 依存하는 形態의 開發戰略을 選擇하지 않는다는 결의의 표명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先進國依存의 종속적인 相互依存의 國際經濟秩序에서 이탈하여 자국에 유리한 한도내에서 자주적이고 選擇的인 相互依存 (selective interdependence³⁵⁾을 주장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맺는 말

우리는 社会科学的 認識이나 理論의 存在拘束性 (Seins verbundenheit) 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近代化論 역시 그것이 생성된 장소 및 인간의 사회구속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이젠슈타트 (S. N. Eisenstadt) 는 近代化論의 이데올로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지적을 하고 있다. 즉 近代化論은 그것이 형성된 第2次 世界大戰後 美国社会의 工業化의 부수현상으로 많은 적은 그리고 빠른 늦은 일어나게 될 普遍的傾向이라는 전제하에서 형성된 것이다. ³⁶⁾ 西側 특히 美国의 近代化論者의 발상법에 따르면, 「東」의 世界든 「西」의 世界든 그리고 第3世界든간에 그 体制의 差異에도 불구하고 工業化에 따른 構造的 특질에 있어서는 공통하다는 것이다.

언젠가 로빈슨 (Joan Robinson) 은 「나를 信賴하여다오. 나는 아무런 偏見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대체로 偽善者라고 지적한 바 있다. 社会科学的 認識에 있어서는 中立性的 주장자체가 主觀性的 표현일 수 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리라.

科學的이라고 주장하는 마르크스 經濟學者의 發展論이나 價值中立性을 주장하는 近代經濟學 및 그 제보를 잇는 「西」側의 近代化論이 政治 이데올로기上으로는 각기 左右의 兩極에 위치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現代 經濟學者의 經濟理論이 여러가지 立場으로 나누어져 經濟政策 문제에 대한 思考方式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각 경제학자들의 이데올로기 또는 비전의 차이는 어떠한 정치, 經濟體制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體制觀의 상이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상에서 필자는 로스토우의 經濟成長段階說, 蘇聯의 國家資本主義論, 프랭크의 從屬論 그리고 第3世界發展論을 展開하는 몇몇 전문가의 所說을 中心으로 그 方法論的 특징과 政治이데올로기적 성격을 分析해 왔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이 유도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로스토우의 近代化論의 諸假說은 體制이데올로기로서의 資本主義・自由民主主義, 보다 구체적으로는 美國式 資本主義・自由民主主義를 전세계적으로 普遍化하려는 명백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 것이고, 로스토우의 그러한 政治이데올로기인 立場은 西歐를 모

벨로 하는 각종의 近代化論에 直接, 間接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

둘째 蘇聯의 國家資本主義論은 第2次 世界大戰後 新興諸國에 대한 그들의 革命戰略의 理論的 기초이며 體制이데올로기로서의 社會主義의 優位性에 대한 確信과 그것의 新興國에로의 普遍化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세계, 從屬論, 自力更生모델, 그리고 混合·折衷型 等の 第3世界의 近代化·發展論은 ㉑ 目標價值로서는 象徴이든 實體이든간에 37) 體制이데올로기로서의 社會主義를 指向하는 傾向이 농후하고

㉒ 現實政策으로는 그 國家의 自立的發展과 自國의 歴史的, 政治文化的 特殊性을 강조한 점에서 民族主義 이데올로기에로의 傾斜가 강하다.

요컨대 社會主義와 民族主義의 結合 또는 混合은 近代化에로의 多樣한 길을 모색하고 있는 第3世界諸國의 유력한 理念的 選擇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新興國의 民族主義 : 象徴과 現實

머리말

이 글은 非유럽·新興諸國의 民族主義를 國際政治的인 계기와 國內政治的 條件과의 關係에서 설명해 보려는 하나의 試論이다.

필자의 研究관심의 軸점은 제 2차 세계대전후의 新興諸國의 民族主義에 관한 다음과 같은 假說的 命題이다.

㉠ 新興國 民族主義는 國際政治的 壓力이라는 外生的 契機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발생초기부터 政治的 象徴으로서 先行했다.

㉡ 그러나 新興國 民族主義는 그 再生産을 위한 개별국가의 國內정치체제의 內生的 條件의 面에서 보면 지극히 不安定하다.

이 글은 어떤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위의 假說을 立證함으로써 新興國 民族主義에 일반화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이나 이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研究構想의 단계에서 하나의 論點으로 제기하여 이 문제에 관심있는 研究者들의 學的 助言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점을 分明히 하기 위하여 첫째, 이 글에서 사용하는 概念에

대해서 몇마디 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新興國의 概念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그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明確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제 2차 세계대전전에 殖民地의 經驗을 가졌던 非유럽諸國으로서 戰後에 政治的 獨立을 얻은 아시아·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등 이른바 第3世界諸國을 지칭하는데 이 글에서는 아시아·아프리카諸國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였다.

그 다음 民族主義는 문맥에 따라 자유주의적 國民主義, 팽창주의적 國家主義, 反殖民地 民族主義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서의 "Nationalism"의 번역어로서 쓸 때도 있고, 좁은 의미의 反殖民地 民族主義에 한정하여 쓸 때도 있다. 38)

그리고 여기서 문제삼는 民族主義는 文化的 民族主義와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政治的 民族主義임을 밝혀 둔다.

民族主義를 文化的 共同體로 規定하는 관점은 예나 지금이나 存在하며 文化가 政治의 條件으로서 중요함은 두말할 것도 없으나 文化的 民族主義가 반드시 政治的 民族主義와 一致하지는 않는다.

○를테면 마이네케는 Staatsvolk와 Kulturvolk를 구별하고 있는데 Staatsvolk는 여기서 말하는 政治的 民族主義를 말하고

Kulturvolk는 文化的 民族主義를 말한다. 獨逸의 民族主義는 프랑스革命에의 対応으로 형성되는데 먼저 文化的 民族主義가 成立된 다음 그것이 政治的 統一에 의해 政治的 民族主義의 형태를 確立한 것은 그후 약 100년후인 1871년 독일제국의 성립후였다.

文化的 民族主義는 民族의 文化가 어떤 社會의 價值體系로서 作될 때 성립하게 되는데, 이 文化적 民族主義가 國家的 水準의 政治的 決定에 대한 國民의 同一化³⁹⁾(Identification)를 추진할 때 비로소 政治的 民族主義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 글의 구성에 관해서다. 이 글은 크게 2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은 新興國民族主義가 그 外生的 契機에 의해서 먼저 政治的 象徴으로서 출발하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하여 볼 때, 오늘날 新興諸國의 民族主義는 그 대부분이 戰前 유럽中心의 國際政治體制하에서는 植民統治에 대한 抵抗인 反植民地主義, 反帝國主義로 나타났고, 戰後 東西 冷戰시대에는 兩極化 國際體制로 부터의 離脫을 주장하는 非同盟・中立主義로 나타났다.

요컨대 이 章에서는 新興國民族主義가 戰前・戰後를 통하여 外壓의 主体와 構造를 달리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外生的 契機에 의해

축발·형성되었으며 국내적 條件의 성숙을 결여한 채 政治的 象
徵으로서 先行했음을 강조했다.

第2章은 新興民族主義 內生的 條件과 그 不安定要因에 대한
설명이다.

이 章에서는 民族主義를 國家政策에 대한 國民의 同一化를 기준
으로 把握하여 대부분의 新興民族主義가 國內政治体制의 機能障
碍로 말미암아 그 再生産을 위한 安定적 條件을 결여하고 있음
을 강조했다.

1) 그 外生的 契機

① 유럽 植民主義에의 抵抗 - 反植民主義

新興국의 民族主義는 그 대부분이 제 2차 世界大戰 以前의
反植民地民族主義의 연장선 위에 있다. 따라서 新興民族主義의
外生的 契機의 淵源을 알아 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당시
의 國際政治의 主体인 유럽사회와 客体인 非유럽사회의 民族主義
의 역사적 특질을 비교해 보는 일종의 歷史社會學的 觀點이 필요
할 것 같다.

아다시피 유럽에 있어서 民族意識은 중세 말기 부터 서서히 싹 트

기 시작했으나 民族主義라는 이데올로기 및 운동이 현저한 歷史的 動力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이후였다.

19세기의 世界史는 유럽近代史에서 생성 발전한 民族主義가 非 유럽세계에 확산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특히 第1次世界大戰을 契機로 유럽 民族主義는 노쇠하기 시작하여 그 매력을 점점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제2차세계대전 후 크게 등장하고 있는 民族主義는 戰前에 殖民地였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이른바 제3세계의 民族主義이다.

그러면 오늘날 新興國, 後進國으로 불리우는 이들 非유럽지역의 民族主義는 유럽 民族主義와 比較하여 어떠한 特長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文化的 異質性을 들 수 있다. 유럽 民族主義는 크리스찬이즘이라는 文化的 同質性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新興諸國의 民族主義는 南米諸國을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 유럽과의 異質性의 自覺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

둘째, 經濟 및 技術의 格差이다. 유럽의 民族國家體制는 단순히 文化的 측면에서만 아니라 기술이나 經濟的 條件에 있어서도 類似性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물론 스페인, 화란, 영국, 프랑스, 사

이에 약간의 時差가 있긴 했으나 構造的 斷絶은 없었다.

이에 대하여 非유럽世界는 유럽의 經濟 및 技術과의 막대한 格差의 自覺에서 反殖民地主義的 民族主義를 형성했다. 유럽의 技術 특히 軍事的 技術의 優位는 殖民地의 征服을 可能하게 했고 그 經濟的 優位는 殖民地 經營을 可能하게 했던 것이다.

세째, 이처럼 유럽世界와 非유럽世界와의 文化的, 經濟的, 技術的인 異質性과 格差는 각도를 달리해 보면 유럽의 民族主義가 주로 內生的 性格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非유럽世界의 民族主義는 주로 바깥으로부터의 壓力에 의해 촉발된 外生的 性格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文化的으로는 기독교적 요소가 거의 없고 막스·웨버가 말한 資本主義의 論理도 存在하지 않았다.

오히려 外壓에 의해 유럽民族主義의 象徴이 들어 온 結果 自發的 條件은 무시되어 擔當勢力이 未成熟한 가운데 民族主義가 政治的 象徴으로서 先行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民族主義의 成長의 速度를 촉진시키긴 하나 그것이 일정한 속도를 넘으면 混亂이 생기게 마련이다.

콩고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獨立과 함께 內戰이 개시되거나

부족으로 분열되는 아프리카의 新興諸국이 그 좋은 예이다.

네째 일반적으로 新興國 民族主義의 현저한 特徵은 그 形成過程에 있어서 知識人의 役割이 크다고 하는 것이다. 한편 傳統的 엘리트층은 植民地支配體制에 편입되어 버렸기 때문에 民族主義 形成의 核이 될 수 없었고 다른 한편 非엘리트층도 불안과 불만을 政治運動에 결집할 수가 없었다. 그 중간에 위치하는 토착의 상인 수공업자는 대부분이 植民統治의 기생적 存在인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知識層을 제외한 다른 계층이 民族主義의 이니셔티브를 질 수는 없었다. 이처럼 유동화하는 狀況 가운데서 象徴이나 커뮤니케이션을 操作할 수 있는 지식인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유럽 특히 독일에서도 지식인의 역할은 컸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상적 측면에서였고 그들이 國家形成의 담당세력이 되지는 못 했다.

이에 대하여 新興國에서는 사상 뿐만 아니라 政治, 經濟, 財經面에서도 知識人은 指導者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特徵이고 實際로 歷史的 經驗에서 보면 民族國家의 形成에 知識人이 크게 공

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후 新興國의 反殖民地民族主義는 유럽民族主義와의 文化的 異質性 經濟的 格差와 같은 外生的 契機에 의해 출발했고 그 內生的 條件을 결여한채 주로 象徴을 操作할 수 있는 知識人에 의해 담당되어 왔다. 41)

② 東·西冷戰體制로 부터의 離脫 - 非同盟·中立主義

第2次 世界大戰後 國際政治的 權力構造의 變動에 힘입어 政治的 獨立을 얻은 新興諸國은 有效한 國內統合을 이룩하지 못한채 東·西冷戰體制에 휘말려 兩者択一을 강요당한 나머지 한때 民族主義의 不在狀況이라고 할 수 있는 冬眠期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50年代부터 서서히 進行된 國際政治의 變化, 즉 「힘」 및 이데올로기의 多元化추세에 따라 新興國民族主義는 兩極化 體制로 부터의 離脫을 주장하는 非同盟·中立主義의 形態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 節에서는 전후 新興國 民族主義의 外生的 契機를 形成한 東·西冷戰의 構造的 特質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아다시피 16, 17세기의 유럽에는 종교전쟁이라는 形態로 대규모의

國際的 內戰이 있었다. 當時의 宗教가 오늘날의 宗教와 달리 政治・經濟・文化 등 人間의 모든 生活領域을 포괄하는 規範原理였던 것을 생각하면, 正統과 異端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물론 그것이 세속의 政治權力과 結合했을 때의 심각성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18세기말 프랑스革命을 契機로 하여 나타난 나폴레옹帝國과 元體制의 대립에도 「힘」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복합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폴레옹은 「革命=戰爭」路線을 표방했고 메테르니히는 「平和=正統主義」路線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歴史的인 선례에 비해서 제2차대전후의 美蘇冷戰體制는 다음과 같은 構造的 특질을 가지고 있다. 42)

첫째 軍事力의 世界的인 兩極化였다는 점이다. 핵병기와 미사일을 전형으로 하는 「究極兵器」의 개발에 따라 東・西의 權力政治的 대립은 지구상에 存在하는 全 人類의 生存 그 自体를 위협했다.

사실 蘇聯은 1945年 후반부터 핵병기 개발을 개시했고 1945年 처음으로 核을 보존하기 이전에도 강대국 陸上軍만으로 美國

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大國이었다. 이점이 바로 전후 冷戰이 軍事力의 國際的 양극화로 나타난 기본적인 條件이었다.

이를테면 17세기의 30年戰爭 때에는 가톨릭의 프랑스가 獨逸의 프로테스탄트諸侯를 도와 같은 가톨릭의 오스트리아와 戰爭할 수도 있었다. 또 18세기말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영국은 유럽大陸의 勢力均衡의 관점에서 처음에는 革命프랑스와 나폴레옹帝國의 革命的 侵略戰爭에 反對하는 兪통성을 보였다.

그러나 戰後 美·蘇冷戰에 의한 軍事力의 양극화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고정화되어 각국의 政治權力이 이 2개의 極을 中心으로 組織化되었다는 점에서 歴史的으로 그 전례를 볼 수 없을 정도이다.

둘째 이데올로기의 전체적 組織化란 점이다.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美·蘇가 같이 인류전체의 해방을 理念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대립이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이었던 것이다.

美國은 自由民主主義, 正確히 말하면 美國式 民主主義만이 世界를 구제할 수 있다고 했고 蘇聯은 社會主義만이 인류해방의 길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다같이 전체적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메시아니즘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힘」의 國際的 블록化의 과정에는 애당초부터 중대한 矛盾을 內在하고 있었다.

美·蘇間의 「힘」의 兩極化는 美·蘇와 다른 同盟國과의 사이에 軍事力의 압도적인 차이, 다시 말하면 핵병기가 存在함으로써 만이 可能했던 것이다.

그러나 흔히들 「核의 逆說」이라고 말하듯이 핵병기는 그 破壞力때문에 軍事同盟도 결코 防衛를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원래 政策의 手段인 戰爭이 熱核兵器의 등장으로 이미 有效한 手段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상대를 몇번이고 죽일 수 있는 핵병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美·蘇 2대국이 가장 심각한 破壞의 危險속에 있는 歴史的이면서도 그러나 確實한 事實을 東西 쌍방이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軍事的인 側面에서 冷戰의 부정적 요인이 점점 증대하여 감에 따라 軍事同盟의 内部關係도 점점 이완 되었던 것이다.

더우기 美·蘇의 核의 보유가 방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하는 条件下에서는 同盟의 組織化가 긴밀할수록 美·蘇의 大國主義에 대한 同盟內 諸國의 反撥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같은 同盟內의 긴장은 이물대면 美·仏間이나 中·蘇間에서 처럼 同盟의 弱體化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드골이 워싱턴으로 부터 獨立하고 中·蘇대립이 격화되고 그리고 西獨이 東方政策을 추구한 것은 군사블록의 붕괴를 결정적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또 군사블록의 이완 내지 붕괴는 同盟諸國의 民族主義로 나타났고 이 民族主義는 東·西陣營내부로 부터 이데올로기의 多元化를 촉진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蘇聯은 社會主義諸國의 民族主義를 公認(제 20 차 蘇聯共産黨大會)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가까운 장래에 共産化할 可能性이 없고 심지어 國內에서 共産黨을 탄압하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 諸國에 대해서도 經濟援助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한편 美國도 美洲內의 라틴 아메리카 諸國의 民族主義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美國의 反共政策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는 無條件 敵으로 간주한 이데올로기의 一元

的 組織化를 修正하고 非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多元的 存在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有效한 反共政策이라는 立場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東·西 양측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의 多元化 경향은 앞에 지적한 「힘」의 多元化 추세와 함께 戰後 美·蘇冷戰의 構造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한때 2개의 이데올로기, 2개의 블록중 兩者択一을 강요당했던 新興諸國은 非同盟 中立主義를 표방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처럼 非同盟·中立主義는 원래 冷戰의 產物이었다. 中立主義가 주목을 끌게 된것은 1949年 北大西洋條約의 체결에 앞서 스웨덴이 이 條約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한때 부터였다.. 그러나 中立主義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冷戰이 지극히 危險한 狀態에 이르렀던 韓國戰爭期였다. 韓國戰爭은 戰後 冷戰이 최초로 熱戰化한 것으로 新興國 특히 아시아지역의 中立主義諸國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의 中立主義諸國이 유엔 내외에서 韓國戰爭의 휴전을 위해 노력한 것은 아직도 기억에 새롭다. 또한 1954年 印支戰爭을 종로시킨데도 中立主義諸

1

國의 역할이 컸다.

이러한 동향을 배경으로 하여 1955年 인도네시아의 반동에 아시아·아프리카의 29개국이 참가하여 非同盟·中立主義의 기본方向에 대하여 論議하고 그 會議에서 채택된 이른바 「平和五原則」은 그 후 第3世界諸國의 外交原則과도 같이 되풀이 하여 주장되어 왔던 것이다.

이리하여 非同盟·中立主義는 東·西冷戰에 편승하지 않으려는 消極的인 것에서 국제긴장의 완화를 위해 東·西의 架橋가 되겠다는 적극적인 것으로 변모했고 오늘날에 와서는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第3世界의 自己主張을 표현하는 民族主義로 발전하여 왔던 것이다.

2) 그 內生的 條件

필자는 이 데올로기로서의 民族主義가 한나라의 統治原理로서 정착하기 위한 條件으로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범적 명제를 제시한 바 있다.

㉠ 그 나라의 최우선 순위의 문제에 철저한 해답을 제공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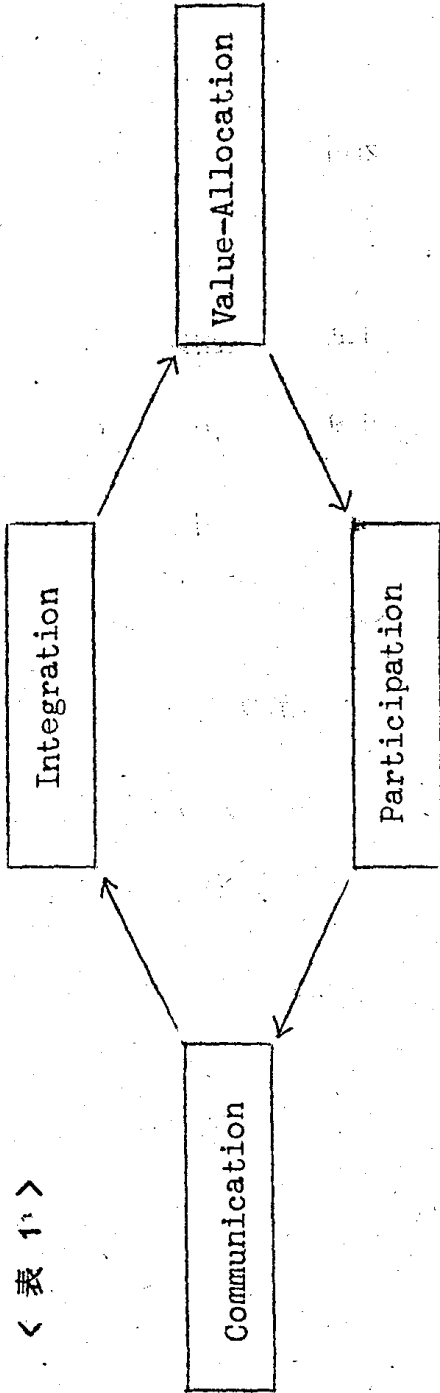
한다.

㉞ 그 나라의 최대다수의 구성원을 흡수하고 그들의 日常生活 속에서 뿌리를 박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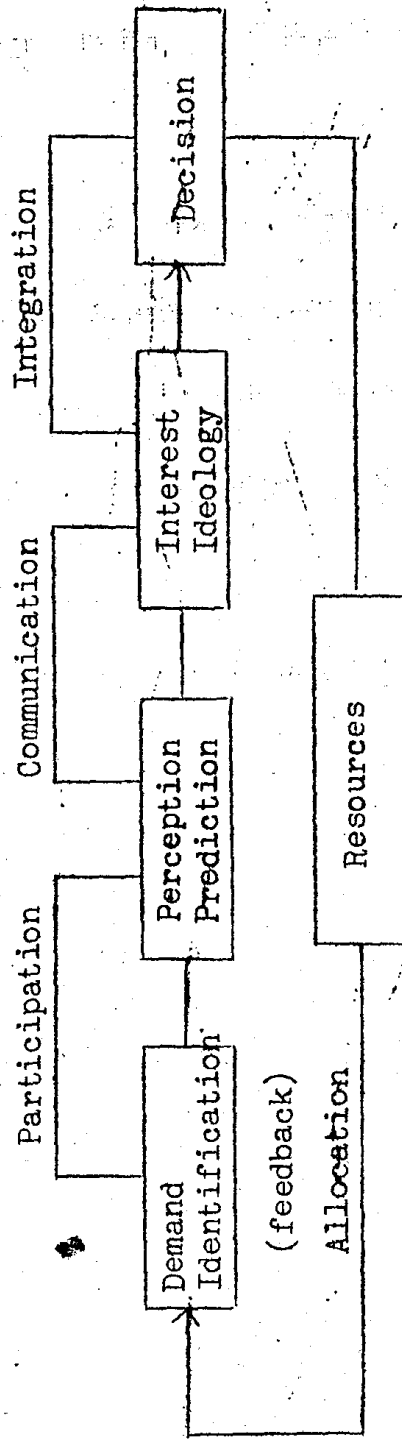
㉟ 그 나라의 大衆과 知識人을 설득할 수 있는 간이하면서도 논리정연한 体系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3)

그런데 이러한 규범적 명제가 사상원리로서만이 아니고 民族國家의 틀속에서 現實의 政治的 결정으로 부단히 再生産되려면 国内政治体制의 안정적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新興國 民族主義가 추상적 상징으로서가 아니고 개개 민족국가의 구체적 政策으로서 재생산되려면, 国内政治体制의 재생산이 필요하고 国内政治体制가 長期的으로 再生産되려면 최소한 <表 1>과 같은 4가지 条件 즉 統合 政治參加 커뮤니케이션 価値配分 등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 条件들이 <表 2>와 같이 政策決定의 순환과정속에서 제기능을 發揮해야 한다.

< 表 1 >



< 表 2 >



그러나 이러한 순환과정에서 일탈하여 機能障礙를 일으킬 때는 國家政策에 대한 國民의 同一化로 표현되는 民族主義가 再生産 될 수 없게된다.

東南아시아 專門家 부레처 (Michael Brecher)는 東南아시아諸國의 政治的 不安定의 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들고 있다.

㉑ 貧困

㉒ 政府에 대한 傳統的 反感 - 政府는 徵稅人이며 抑壓者이며 또한 地主의 友人이다.

㉓ 民主政治의 經驗의 결여

㉔ 獨立過程에 있어서의 戰爭과 革命으로 인한 暴力과 混亂의

분위기

㉕ 訓練된 관료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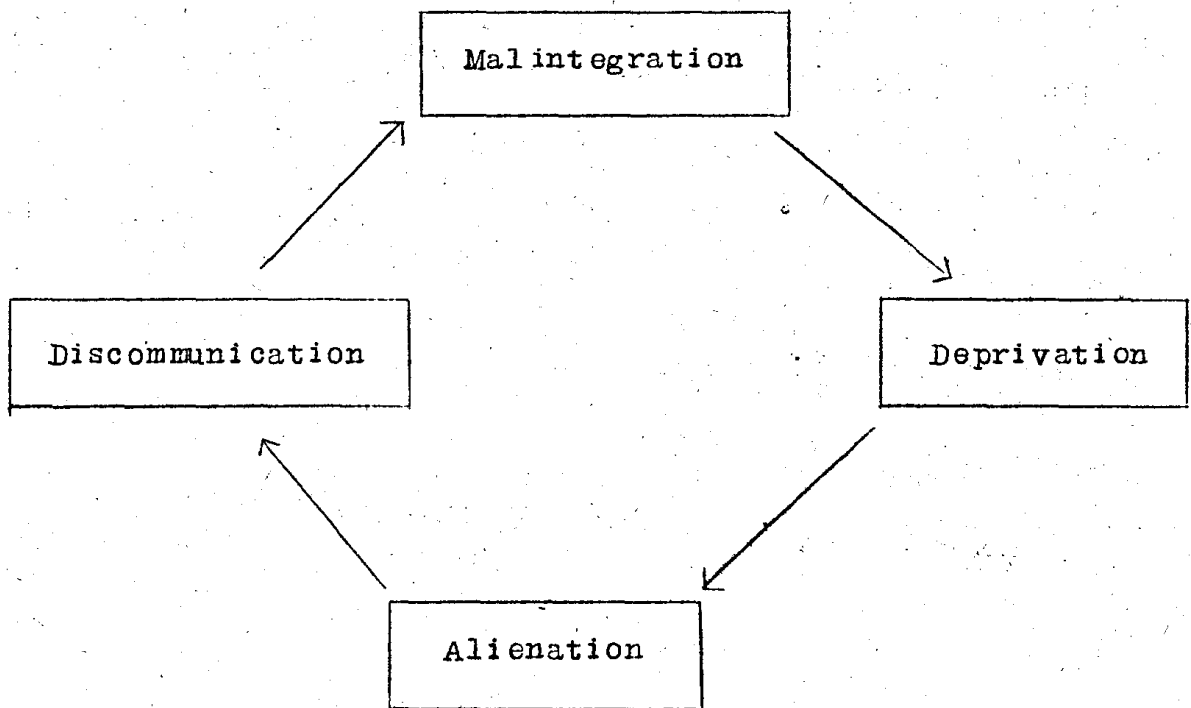
㉖ 政黨의 能力결여

㉗ 民族主義로서는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는 기분⁴⁴⁾

위 부레처가 나열한 요인들을 國內政治体制의 機能障礙로 把握한다면, 新興國民族主義의 內生的條件은 <表 3>과 같은 圖式 즉 政治參加에 대하여 疎外,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障礙

(Dis communication) 統合에 대하여 統合障碍 (Malintegration), 그리고 価値配分에 대하여 価値剝奪 등의 악순환으로 나타난다.

< 表 3 >



① 政治参加機能의 障碍

제 3 세계 특히 아시아·아프리카계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전통적인 폐쇄적 지역집단이 政治参加의 기초적 단위로서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傳統的 地域집단내에서는 집단과 개인이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獨立性이 낮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個人的 獨立性이 약한 傳統的 集團이 바깥에 대해서는 일종의 利益集團的 機能을 遂行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각종의 인종적 집단과 종교적 집단이 그 좋은 예다.

첫째 인종적 집단의 利益集團的 行動은 부족문제, 소수민족문제 등의 形態로 新興諸國에 많이 나타나는 問題이다. 이를테면 인도는 14 개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구별의 기준은 言語이며 말레이아처럼 말레이아인과 중국인들이 집합해있는 나라도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華僑이나 아프리카 각지의 인도인, 베트남 라오스의 산악민족등은 널리 알려져 있는 예다.

둘째 종교적 집단의 利益集團的 行動으로는 이를테면 인도의 카슈미르 분쟁에서 볼 수 있는 종교집단의 대립이 그 전형이다. 그

외에도 레바논의 마론, 아르메니아의 아르메니안이라는 基督教도
버마의 카렘이라는 기독교도 등은 植民地 時代에 改宗한 사람들
로서 植民地時代에는 우대를 받았으나 獨立後에 오히려 박해를 받
는 입장이 되었다.

이처럼 전통적 폐쇄적 집단에 개인이 매몰되어 있는 狀況에서
는 national한 政策決定에의 參加내지 支援도 明確한 利益觀念
을 매개로 하여 成立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日常的
인 利益이 内部的 parochial한 社會에 흡수되어 national한
決定으로 통합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나라에서도 産業化나 社會의 分業化가 진행함에 따
라 parochial한 집단에 대신하여 어느정도 직능적, 기능적 집단
이 形成되기는 한다.

그러나 傳統的 社會에서 獨立하고 있는 地域은 주로 도시에 한
정되어 있다. 도시에서는 여러가지 계층에 이르기까지 직능적
利益集團을 形成하여 그것을 통하여 national한 결정이나 요구
가 定型化된다.

新興國의 獨立過程에 등장하는 엘리트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이

대개 農村에서 태어나 도시 특히 首都에 나온 經驗을 갖고 있는 점이다. 도시에 나온다고 하는 의미는 national한 政治의 中心에 나오는 것이며, 거기서 民族主義의 세례를 받고 獨立運動의 過程에 뛰어드는 예가 압도적이다. 農村에서는 national한 政治參加가 構造的으로 沮害되어 있고 도시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

② 커뮤니케이션 機能의 障碍

新興國 國民의 대다수가 national한 政治的 決定에서 탈락하고 있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新興國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기능의 장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1) 촌락과 촌락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 2) 都市와 촌락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 3) 都市의 커뮤니케이션이 national한데 대하여 촌락의 커뮤니케이션은 parochial한 결정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

都市의 매스메디아는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national한 매스미디어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를테면 아프리카諸國에서는 national한 매스미디어에서 英語나 仏語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의 매스미디어와의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증대하여 情報의 환류 (feedback) 기능이 어렵다. 엘리트로부터의 프로파간다를 라디오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방출되지만 대중으로부터의 情報이 환류되지 않는다.

또한 新興諸國에서는 都市地域에 있어서의 매스미디어가 權力에 의한 통제를 받음으로써 政府機構의 一部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政府의 매스미디어 独占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障礙의 예로는 대중과 현실간의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들 수 있는데 대체로 2가지의 形態로 나타난다. 하나는 일종의 愚民政策 (obscurantism)으로 情報의 量的 制限에 의해 대중을 非政治化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情報을 質적으로 制限하여 오히려 量的으로는 다량의 情報을 방출함으로써 대중을 政治化하려는 일종의 熱狂主義 (fanaticism)이다.

③ 統合機能의 障擱

이 상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國民 個個人的 政治參加나 必要한 情報가 부족하기 때문에 政策決定者는 구체적인 利益의 集積과 配分을 통해서 政治体制의 統合을 再生産해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고도로 抽象化된 象徴으로서의 民族主義에 호소함으로써 國民的 統合을 유지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新興國 政策決定者가 對外的으로 국가적 위신을 높이는데 몰두한 나머지 國內政治에 있어서의 利益의 配分에 소홀한 예는 흔히 볼 수 있다. 즉 新興國의 政策決定者는 國民의 具體的 利益 觀念을 매개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組織象徴을 매개로 한 안이한 방법을 택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러나 이러한 象徴을 통한 國民統合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parochial한 집단사이에 이해가 대립하여 조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추상적인 이데올로기나 심정적인 象徴에 호소하여 民族的 統一, 獨立이 강조될 때일수록 利益의 配分의 면에서는 分裂 (Disintegration)의 危險이 높아질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해 둘 경우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軍事
「革命」이다.

오늘날 新興諸國에 軍의 政治的 개입이 거의 일반화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國內의 national 간 統一의 기초가 약하고 内部에 분열
의 기풍이 강하기 때문에 象徴的 統合에의 요구가 높아진다.

㉡ 新興國 相互間에 不正確한 境界線이 있어서 그 경계를 들
러싼 대립이 存在한다. 즉 殖民地時代의 유산인 境界線이 獨立後
에도 對外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인도 파키스탄이 그 좋은 예
다.

㉢ 政黨이 일반적으로 近軍대적 집단인 利益을 추구하는 閥의
集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national 간 利益을 強權的으로 統合
할 수 있는 組織은 軍以外는 없다. <表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新興國의 政黨體制와 軍部쿠데타의 빈도에 관한 메멘

(Fred R. Von der Medden)의 研究는 極 示唆的이다.

< 表 4 > Coups or Attempted Coups

Party System	Number of Countries	Countries with Coups
No. effective parties	17	14 (83%)
Prsletariat	3	0 (0%)
One-party	18	2 (11%)
One-Party dominant	12	4 (33%)
Two-party dictatorial	4	2 (50%)
Two-party democratic	7	3 (43%)
Multiparty	22	15 (68%)

出 处：Fred R. Von der Mehden, Politic of the Developing Nations. Prentice-Hall, Inc., 1964, p. 65.

④ 價值配分機能의 障碼

일반적으로 價值剝奪은 政策支持를 위하여 社會의 構成員이 지불한 費用에 대하여 이에 相應하는 보수가 없을 경우를 말하는데 經濟的 價值剝奪이 그 核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經濟的 價值剝奪의 問題는 國際政治의 水準에서는 南北問題로, 國內政治의 水準에서는 社會階層間의 對立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날 아시아·아프리카諸國의 빈곤의 問題는 國際體制 및 그들 國內體制의 構造的 葛藤의 基本적 動因이 되어있다.

新興國 民族主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류가 예견할 수 있는 장래에 있어서 有效한 世界政府가 달성되지 않은 한, 그리고 모겐소(Hans Morgenthau)의 명제대로 ① 국제정치의 궁극적 주체가 民族國家이고 ② 그 民族國家의 外交政策의 目標가 國家利益인 한, 民族國家의 政治的 決定의 理念的 表現인 民族主義는 그 存在理由를 결코 喪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民族國家가 형성되었거나, 되고있는 중이거나 또 한 그것을 指向하는 新興諸國의 民族主義도 그 國內體制의 성격

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存在하는 政治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國家, 民族의 獨立, 利益, 權威의 象徴으로서의 新興國 民族主義는 今후도 國際政治 및 그들 國內政治의 主要한 變動요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民族主義는 象徴으로서의 有効性的인 範圍내에서 는 반드시 그 「主人」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新興 諸國에서 政治的인 엘리트와 대중이 각기 다른 目的으로 民族主義라는 公同의 象徴을 使用함으로써 發生하는 自己分裂的인 狀況은 그 좋은 예다.

그런데 本論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象徴으로서의 民族主義가 일단 개개 민족 국가의 現實의 政治過程속에 장기적으로 再生産되고 內在化되면, 그 國家의 政治體制의 特殊한 성격에 의해 制約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社會主義體制를 채택하는 國家는, 만약 그 民族主義가 장기적으로 安定화 된다면 社會主義와의 理想的인 同盟, 收斂등의 45)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混合經濟體制를 선택한 國家라면 그 民族主義의 성격이나 方向도 기본적으로는 體制이데올로기로서의 資本主義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맺는 말

우리는 어느나라나 어느지역의 민족주의를 政治学的으로 分析하다 보면 가끔 다음과 같은 2가지 命題에 부딪히게 된다.

㉠ 民族主義는 언제나 특정간 歴史的 社会的 条件, 政治体制下에서 成立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特殊的, 相對的인 현상이라는 命題

㉡ 民族主義는 개개 政治構造의 多樣性 特殊性을 초월하여 유럽이든 非유럽이든 「東」의 諸国이든 「西」의 諸国이든 그리고 「南」의 諸国이든 「北」의 諸国이든 간에 近代 이래의 모든 政治体制의 일관하여 存在하고 있기 때문에 普遍的 中立的인 현상이라는 命題

이 두 命題는 일견 모순으로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반드시 모순하는 것은 아니다. 民族主義는 여러가지 다양한 政治勢力을 거점으로 하니까 반드시 특정간 政治体制와 결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류의 歴史的 經驗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기존의 政治体制가 특히 对内分裂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民

族主義에 호소함으로써 전통적인 價值體系의 보존을 꾀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엘리트가 民族主義의 주된 擔當勢力이 되지 않을 경우엔 民族主義는 엘리트에 대항하는 變革의 에너지를 원천이 되어 쉽게 社會革命과 결합하게 된다. 기존질서를 暴力的으로 유지한 나치즘은 전자의 예이고, 프랑스革命 당시 형성된, 貴族은 외국인이라는 이미지는 후자의 좋은 예다.

아무튼 民族主義는 거대한 민중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左右를 막론하고 누가 民族主義의 象徵을 先取할 것인가가 政治勢力의 立場에서는 기본이슈로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民族主義는 歴史的으로 보면 여러가지 政治體制와 결합되어 왔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普遍的 中立的 性格을 띠고 있다. 그러나 民族主義가 단기적이고 一回的으로 성립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재생산될 경우에는 그 담당세력과 政治體制의 입장을 유지 강화하는 점에서 特殊的 相對的 性格을 띠게 된다.

註

· * 이 小論은 2개의 獨立論文 즉 「新興國 『近代化』論의 이데올로기적 性格」과 「新興國의 民族主義：象徵과 現實」을 묶은 中 앞부분에 關한 것이다.

1) 第3世界란 표현은 1961年 알제리아의 프랜즈·파논(Franz Fanon)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며 그후 Thomas P. Thornton(ed), The Third World in Soviet Perspective, Princeton, 1964; Mario Rossi, The Third World : The Unaligned Countries and The World Revolution, New York, 1963. 등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74年 4월 유우엔 자원 특별총회에서 鄧小平 中共대표는 「美國과 蘇聯이 第1世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발전도상국이 第3世界이며, 그 양자의 中間에 있는 발달국이 第2世界다」고 하고 中共을 第3世界에 포함시키고 있다. (新中國年鑑, 大修館書店 1975年版). 호로비츠(Irving Louis Horowitz)는 韓國과 共產化되기전의 南베트남을 第3世界의 범주에 넣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도 한국을 第3世界の 新興國의 범
주에 넣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2) 工業化의 진행에 따라 인간관계, 행동양식, 가치관, 사고방식 등
이 個別主義 (particularism)에서 普遍主義 (universalism)
으로, 集團主義 (collectivity-orientation)에서 個人主義
(self-orientation), 屬性主義 (ascription)에서 業績主
義 (achievement), 役割無限定 (diffuseness)에서 役割限定
主義 (specificity), 感情主義 (affectivity)에서 感情的中
立主義 (affective neutrality)로 변화한다고 본다.

(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Free Press, 1964, p.67)

3) W. 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1960

4) W. W. Rostow, op. cit., p. 2

5) ibid., p. 38

6) ibid., p. 4

7) ibid., p. 8

8) ibid., pp. 4-16

- 9) ibid., p. 162
- 10) M. F. Millikan & W. W. Rostow, A Proposal, key to Effective Foreign Policy, 1957.
- 11) Ragna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Oxford, 1953.
- 12) Albert O. Hirs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ersity Press, 1970 pp. 83-85 参照
- 13) Modeste Rubinstein, A Non-Capitalist path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News Times, 1956, NO. 28, 32, 日訳版
「世界政治資料」
- 14) Ajoy Gosh, Indian Path of Development, New Age, 1955
oct. 日訳 『世界政治資料』, 1957年, 1月 10月, 12号.
- 15) アジア・エートス研究公編, 「アジア近代化の研究」, 御茶の水 書房,
1969, p. 27-28.
- 16) 이를테면 憲法에 社會主義를 목표로 한 에집트는 蘇聯流의 民族民主國家 모델의 變種이라 할 수 있다.
- 17) 尾崎彦明編者, 「低開發國政治經濟論」, 1967年, ミネルヴァ書房,

p. 53.

- 18) 岡倉古志郎, 「民族民主革命の現段階の当面の課題」 「アジアアメリカ講座」第1巻所収, 1964年 勁草書房, p. 148 .
- 19) Andre Gunder Frank, Latin America : Under development or Revolution, Essays on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 and the Immediate Enemy, New York and London, 1969.
- 20) ibid., p. 4
- 21) ibid., p. 9
- 22) ibid.,
- 23) ibid., pp 10-11.
- 24) Irma Adelman and Cynthia Taft Morris, 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3, pp. 151-170.
- 25) Andre Gunder Frank, op. cit., p. 13.
- 26) 호로비츠는 第3世界の 歴史的, 政治文化的, 經濟的 특수성에

착안하고 있는 많지 않은 先進国 研究者들중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第3 세계의 發展모형을 混合・折衷型에서 찾고 있다.

27) Irving Louis Horowitz, Three Worlds of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39-44.

28)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115 개국 (1976年 10 월현
재) 가운데 90 여국이 憲法上으로 共和制를 택하고 있다.
(時事年鑑, 時事通信社, 1977, pp 514 - 588 參照)

29) Irving Louis Horowitz, op. cit., pp. 44-46.

30) ibid., pp 9-10.

31) Ali A. Mazrui, "Eclecticism As An Ideological Alterna-
tive : An African Perspective," Alternatives 1 (1975)
pp. 483-484.

32) アンダーソン・메ー덴, ヤング共著 (木村修三訳), 「 低開發国の政
治發展 」, 鹿島出版社 1969 . pp 298-299.

33) 丸山静雄, 「 混合革命 」, むすず書房 pp 22-34.

34) 獨立을 잃은 經驗이 없는 타이의 경우는 社会主義가 仏教
와 통합하는 機会를 缺如하고 있기 때문에 兩者는 對立概念

으로 把握되고 있다.

35) 武者小路公秀, 「第3世界の 政治学Ⅱ」(年報 政治学 1976年
所収) p. 168.

Hammershold Foundation ed., What Now?, Geneva, 1975,
p. 20.

36) S. N. Eisenstado : Internal and External Forces in the
Development of Sociological Analysis-With an Illus-
trations from Studies of Development and Modernizat-
ion, August 20, 1974, VIII World Congress, Internationa-
l Association p. 1.

37) 第3世界 115개국 (1976.10 현재) 가운데 60여국이 상징으
로서나 실제로서 社会主義를 指向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
면, 社会主義政權이 15개국, 다양한 社会主義政策을 취하고 있
는 混合型이 31여개국, 社会主義政權이 아니라 상징으로서의
社会主義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가 14여개국이다. 나머지
55여개국은 性格未定の 政체를 가진 나라들이다.
(時事通信社 前掲年鑑 pp. 514-588, 浦野起夫 「発展途上国の

社会主義」アヅア經濟研究所, 1974) p. 81. 参照

- 38) Nationalism의 번역어 및 그 용법에 대해서는 梁好民, 韓培浩, 盧在鳳, 文丞益, 崔相竜 共著 「韓國民族主義의 理念」 (1977)에 수록된 拙稿 “韓國民族主義와 이데올로기” 参照
- 39) 여기서 말하는 同一化는 어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자기와 국가(민족)를 一体化하고 자기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心理的 態度를 의미한다.
- 40) 民族主義를 西歐와 非西歐로 나눈 Hans Kohn의 分類法에 관한 해설로는 Louis L. Snyder, Varieties of Nationalism: A Comparative Study. Dryden Press, 1976, pp 29-32 参照
- 41) 反植民地 民族主義 담당세력으로서의 知識人의 役割에 대해서는 John H Kautsky, Political Chang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ew York, 1967, pp 38-49 参照.
- 42) 전후 東·西冷戰을 「힘」과 이데올로기의 兩契機에서 把握한 논문으로는 岩波講座 現代6 「冷戰」所収 坂本義和 “冷戰の政治的條件,” pp. 91-95 参照. Norman A. Graebner ed., A Conflict of Ideology and Power, Heath Company, 1976.

pp. 77-96 ; Zbigniew Brzezinski, "Communist Ideology :

Key to Soviet Policy 参照.

43) 前掲 韓國民族主義의 理念, p. 22.

44) Michael Brecher The New States of Asia, London, 1963,

pp. 62-69.

45) E. H. Carr는 同盟 (alliance) 이란 표현을 쓰고 있고, (E

H. Carr Nationalism and After, 1965, p. 19), John H. Ka-

utsky는 收歛 (Convergence) 란 말을 쓰고 있다.

(Kautsky, op. cit., p. 79)

...

...

...

...

...

...

...

...

...

...

...

...

...

...

...

...

...

...

...

...

...